

태양광

그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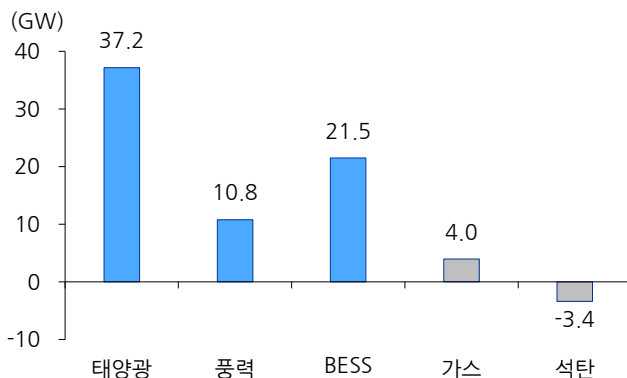
머스크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태양광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확보 경쟁에서 태양광과 BESS의 절대 우위는 지속될 것이고, 우주로까지 확장되면 파급 효과는 쓰나미 급일 것

머스크의 태양광 베팅에 주목해야

ESG/그린산업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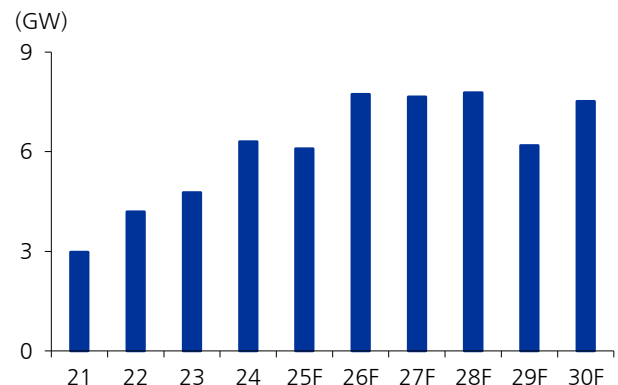
- 일론 머스크, 태양광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내에 100GW 캐파 확보 계획 밝혀
- 2006년부터 솔라시티를 통해 사업을 하며 태양광이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는 평가에 방점을 찍은 듯
- 머스크의 태양광 선택은 사업적으로 1) 주력 사업으로 부상한 BESS 사업과 시너지 극대화 2) 자체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조달 3) SPACE X의 우주 태양광 데이터 센터 사업을 위해서라고 판단. 우주의 태양광 설치의 전력 효율이 육상 대비 2~5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나, 데이터 센터의 완벽한 관리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기술적인 진보 상황을 지켜봐야
- 100GW 생산 능력 확보는 미국의 수요를 감안하면 과장된 수치라고 판단되나, 머스크 제국이 GW급의 태양광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업계에는 주요 이정표가 될 수 있어
- 구글의 태양광+BESS 개발업체인 Intersect Power 인수에 이어 머스크의 태양광 베팅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심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 미국 EIA의 향후 12개월간(25년 12월~26년 11월) 신규 발전원 예상치는 태양광 37.2GW, 풍력 10.8GW, BESS 21.5GW로 신규 발전 설비의 99% 이상이 재생에너지와 BESS. 반면 화석연료는 가스 발전 4GW 신설과 석탄 발전 폐쇄 3.4GW여서 신규 기여 미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충당은 재생에너지와 BESS에 의존함을 확인시켜 줘
- 태양광 관련주들에게 머스크의 진입은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표준으로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테슬라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과정을 주목해서 보아야

미국 향후 12개월간 신규 발전원 예상치



자료: EIA

미국 연간 신규 데이터 센터 설치량 예측치



자료: BNEF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12.31 기준)